

나주시 빛가람동, 16개 경로당에 '발마사지기' 전달

열병합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일환



빛가람동 내 16개 경로당에 어르신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발마사지기를 전달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동장 김귀남)은 지난 23일 빛가람동 내 16개 경로당에 어르신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한 발마사지기 32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반경 5km 내 지역의 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되었다.

이제껏 빛가람동 노인회장은 “지난해 안마기에 이어 이번에 발마사지기까지 지원돼 회원들이 만족해하고 있다”며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한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귀남 빛가람동장은 “앞으로도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아동

복지, 청소년복지 등 다양한 지원 아이템 발굴을 통해 ‘살고 싶고 살 만한 빛가람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빛가람동은 이번 발마사지기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로당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복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인 복지뿐 아니라 세대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담양군·장성군,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상생협력 확대

화순군, 여름철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점검 강화

담양군과 장성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부서 간 상호기부를 추진하며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담양군 참여소통실과 장성군 문화교육과 직원 40명이 참여해 각 지자체에 200만 원씩 교차 기부하며 지역 발전을 함께 응원했다. 장성군 문화교육과 직원들은 기부 후 담양을 찾아 축죽원과 관방제림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교류 시간을 가졌다. 담양군은 기부자에게 주요 공영관광지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날 직원들은 해당 우대 혜택을 직접 체험했다. 양 군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지역 간 협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최종민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관내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지정된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냉방기 작동 상태, 위생 관리, 비상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특보 발효 시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부 확인과 방문 건강관리도 병행한다. 화순군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하며 군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영광군, 여름방학 맞아 '어린이 찰보리 쿠킹클래스' 운영

찰보리의 달콤한 재발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여름 추억

2026년 찰보리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쿠킹클래스 모집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찰보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찰보리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5

시까지 영광 찰보리 어울터 1층 주민체험교육실(군남면 천년로 909-7)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1일 4회씩 총 16회 운영되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5월 9

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영광 찰보리 축제에서 운영한 쿠킹클래스가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따라 마련됐다. 당시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와 가족들로부터 높은 만족도와 함께 추가 운영 요청이 이어지면서, 보다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게 됐다.

모집 규모는 총 160팀으로, 팀당 2~4인으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체험 참가자들은 찰보리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찰보리 마들렌 ▲찰보리 스모어 쿠키 ▲찰보리 당근 컵케이크 ▲찰보리 포카치아 피자 등 다양한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건강한 먹거리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률 기자

장성군, 황룡강 수질 관리 '우수기관' 선정

전남도 수질오염총량관리 우수 평가... 부서 협업, 오염원 제거 노력 인정

장성군이 전라남도 주관 '영산강·섬진강 수계업무 담당자 연찬회'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실적평가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찬회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시·군 및 관계기관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지원사업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청정 환경 보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성군은 부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목표 수질 달성과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오염부하량을 체계적으로 삭감하는 등 황룡강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인정받았다. /유광중 기자



장성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장성군 제공

군 관계자는 “청정 장성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수질 개선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체계적인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황룡강을 중심으로 한 하천 환경 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을 함께 고려한 지속가능한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 의식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유광중 기자